

세계정당당대의 원상적인 공포프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갈평 IC 구간 광복 동영도 관동 (명절 특별행) IC 영수권 100% 개시
- 인천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신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지난 23일 베이징 우커슈야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야구 결승 한국-쿠바전에서 3-2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사하고 있다. 구기 종목 단체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기는 1988년 서울 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2연패를 한 여자 핸드볼에 이어 16년 만의 성과다. /연합뉴스



이승엽

‘태극 不敗’ 세계가 놀랐다

한국 야구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9승의 ‘퍼펙트’ 행진으로 올림픽 첫 금메달 패거리를 달성했다.

한국은 지난 23일 베이징 우커슈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결승전에서 선발 류현진의 눈부신 투구와 이승엽의 홈런포를 앞세워 쿠바를 3-2로 힘겹게 따돌리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올림픽 본선에 3차례 진출한 한국 야구는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최하위인 8위, 2000년 시드니대회 동메달에 이어 첫 금메달 위업을 이룩하며 베이징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렸다. 한국이 구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때 여자핸드볼이후 16년 만이다.

‘라이언킹’ 이승엽의 선제 2점포가 1회부터 불을 뿜었다. 전날 준결승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역전 투런포를 뽑아낸 이승엽은 1회초 이용규가 중전 안타로 만든 2사 1루 찬스에서 쿠바 선발 노베르토 곤잘레스의 4구째



이승엽 또 투런포...류현진 쾌투

쿠바 3-2 꺾고 9연승 ‘퍼펙트’

바깥쪽 직구를 밀어쳐 왼쪽 담을 넘기는 2점포를 뿜어냈다. 쿠바는 공수 교대 뒤 마이클 엔리케스가 좌월 솔로포를 터뜨려 곧바로 1점을 만회했다.

2-1로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7회에는 천금같은 추가점을 뽑았다. 2사 후 박진민의 우전 안타, 이종욱의 볼넷으로 만든 1, 2루 찬스에서 이용규가 쿠바 두 번째 투수 페드로 루이스 라조의 공을 잡아당겨 우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3-1로 달아났다.

하지만 쿠바의 추격은 매서웠다. 전 대회 우승팀인 쿠바는 7회 말 알렉세이 벨의 좌중

월 1점 홈런으로 2-3으로 쫓아왔다. 8회 말에는 아리엘 페스티노에게 좌전 안타를 얻어맞으며 1사 1루 위기를 맞았지만 선발 류현진은 에두아르도 파레트를 2루수 플라이, 히오르비스 두베르글을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며 실점을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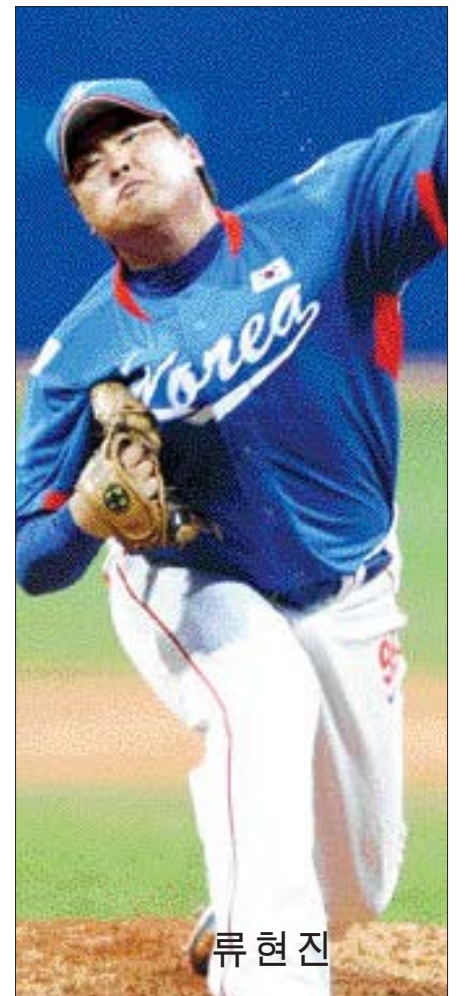
최대 위기는 9회 말에 찾아왔다. 잘던지던 류현진은 9회말 선두타자 핵토 올리비에라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뒤 보내기 번트로 1사 2루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주심 카를로스 레이 코토(푸에르토리코)의 들쭉날쭉한 스트라이크 존 속에 프레데리 세페다와 알

렉세이 벨을 잇따라 볼넷으로 내보내 1사 만루의 역전 위기를 맞았다. 이 순간 포수 김민호가 주심에게 항의하다 퇴장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최악의 위기에서 김경문 감독은 배터리를 정대현과 진갑용으로 교체하며 분위기를 추스렸다.

질체절명의 순간 마운드에 오른 정대현은 울리에스키 구리엘을 상대로 스트라이크 두개를 잇따라 찾아낸 뒤 3구째 공으로 유격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잡아내 극적인 올림픽 첫 금메달 드라마를 완성했다.

한국 선발 류현진은 8과 3분의 1이닝동안 삼진 7개를 슈아내며 5안타(2홈런), 2실점으로 막고 15일 캐나다전 완봉승에 이어 감격적인 승리를 거뒀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3~4위전에서 8-4로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 김경문 감독

“벌거벗고 인터뷰하는 꿈 좋았나 봐요”

“며칠 전에 벌거벗고 인터뷰 하는 꿈을 꿴습니다. 그 덕분에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냉정한 표정을 잃지 않던 김경문 감독도 야구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에는 어지간히 흥분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승이 확정된 직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을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힌 뒤 그는 “동메달이 목표였고, 금메달은 생각지도 못했었다”는 말을 겨우 꺼냈다. 전체적인 실력 차는 많이 좁혀졌지만 아직 쿠바, 미국, 일본이 한국보다는 한 수 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건 선수들 간의 팀워크 뿐이라고 생각했다. “야구는

팀이 하는 것”이라는 게 그가 몇 번이고 되풀이한 소신이었다. 그는 쿠바 같은 강팀을 이기기 위해 야구 상식을 벗어나는 작전을 펼쳤다. 무사 1루 찬스가 위도 안전한 번트 대신 강공 지시를 한 것이었다.

23일 결승전은 끝까지 류현진에게 맡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9회 말 류현진이 1사 만루 상황에서 물리는 바에 정대현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 이승엽 선수

“TV로만 보던 금 직접 목에 거니 기뻐”

“항상 금메달이 걸린 경기는 TV로만 시청하다 오늘 직접 해보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니 실감이 안 나네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9경기에서 전승을 거둬 꼭 금메달을 따겠다”는 약속을 이승엽은 지켰다. 본선 풀리더에서 부진했지만 언젠가 한 방을 때려줄 것이라는 김경문 감독과 동료의 변함없는 믿음은 등에 업고 그는 중요한

두 경기에서 대포를 두 방이나 터뜨렸다. 미국전에서 2루타로 딱 한번 팀에 기여했을 뿐 존재감이 미미했던 이승엽은 22일 일본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포를 쏘아올린 후 “동료와 후배에게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볼 낮이 없었다”면서 부끄러워했다. 주포의 책임감에서 흐르는 눈물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쿠바전에서도 1회 바깥쪽 공을

결대로 밀어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결승 투런포를 쏘았다. 그의 홈런이 나오면 대표팀 투수와 타자 할 것 없이 모두 안심했고 대표팀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끈 끝에 너무도 고귀한 금메달을 따냈다.

1999년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부터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이승엽이 금메달을 따기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3일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핸드볼 3~4위전에서 헝가리를 33-28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딴 한국 선수들이 함께 모여 빙글빙글 돌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보다 값진 ‘우생순’ 銅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헝가리 33-28로 꺾어



여자핸드볼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끝까지 투혼을 불사하며 금메달 만큼이나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3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여자핸드볼 3~4위 결정전에서 헝가리를 33-28, 5점 차로 꺾으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연출했다.

1984년부터 7회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에 선 여자핸드볼은 이로써 통산 금 2, 은 3,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메달 효자종목’으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4위로 물러난 2000년 시드니 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이들 전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종료 직전 석연찮은 득점을 허용해 28-29로 부활을 꿨었던 한국은 아쉬움과 실망

이 컸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반에는 경기 흐름이 파도를 탔다. 안정화(대구시청)의 속공으로 선제골을 넣은 한국은 몸이 무거운 듯 수비에서 계속 빈틈을 보이고 패스범실을 연발하며 전반 6분 만에 2-6, 4점 차까지 뒤졌다.

승부의 추가 한국 쪽으로 기울 것은 27-27이던 후반 23분이었다.

상대 선수 2명이 연달아 2분 퇴장을 당한 사이 한국은 홍정호의 7m 던지기에 이은 이민희의 선방, 안정화와 박정희의 측면 슈팅으로 30-27, 3점 차로 점수를 벌렸다.

남은 시간은 4분. 헝가리는 작전 시간을 불렀지만 한국의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조급한 헝가리의 패스 미스를 틈 타 문필희는 외곽포를 뿜어냈고, 박정희는 측면을 뚫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한국은 32-27, 5점 차로 앞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감동의 선수 교체

헝가리전 종료 1분전 고참들로 바꿔

임감독 “마지막 너희들이 장식해라”

“이미 결정한 경기에 타임아웃을 부르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의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3~4위 결정전이 열린 지난 23일 오후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

경기 종료를 1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33-28, 5점 차로 이기고 있어 동메달은 이미 확정돼 있었다. 그런데 임영철 감독은 이상하게도 작전 시간을 요청했다.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 모은 임 감독은 선수 교체를 시작했다. 모두 노장이었다. 골키퍼에 오영란(36·백산건설)이 들어갔고 후반 중반 이후 계속 벤치에 앉아있던 오성욱(36·히포방크)은 센터백에 섰다.

다른 포지션도 거의 바뀌었다. 라이트백에 홍정호(34·오드론), 레프트백 문필희(26·백산건설), 피봇은 허순영(33·오르후스), 라이트윙 박정희(33·백산건설), 레프트윙 안정화(27·대구시청)였다.

문필희와 안정화만 빼면 서른 살을 훌쩍 넘긴 고참들이 모두 투입된 것이다. 임 감독은 마지막 1분을 뽐 선수들에게 “마지막을 너희가 장식해라”라고 얘기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더 이상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없는 고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임영철 감독은 경기 직후 공동취재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선수들을 데리고 엄청난 훈련을 했는데 이들은 앞으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더 값진다. 열정과 혼을 담은 메달”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마라토너 이명승 18위

이봉주 28위...김이용 50위

케냐 완지루 올림픽新 우승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마라톤 대표 세 명 가운데 29세로 나이가 가장 적은 이명승(삼성전자)이 한국 마라톤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명승은 24일 오전 24일 텐안먼 광장을 출발해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들어오는 42.195km 풀코스에서 진행된 베이징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14분37초로 18위를 차지했다. 1위 사무엘 완지루(케냐·2시간6분32초)와는 8분 이상 차이가 났지만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20위 이내에 포함돼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명승(38·삼성전자)은 막판까지 40위권에 처져 있다 특유의 지구력을 ‘앞세운 스피드로 10명 이상을 제치고 28위(2시간17분56초)로 끝냈으며 김이용(35·대우자동차판매)은 2시간23분57초로 50위를 기록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도 출전해 2시간21분01초로 41위, 한국 선수 세 명 가운데 최하위에 그쳤던 이명승은 2003년 3월 동아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13분42초가



이명승

이봉주

개인 최고 기록으로 이번 대회 입상을 바라기는 쉽지 않았던 선수였다. 그러나 4년 만에 다시 도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기록을 6분 정도 앞당기고 순위도 크게 끌어올리며 사실상 ‘포스트 이봉주’에 해당하는 한국 마라톤의 가능성을 엿봤다는 작은 의미를 둘 수 있다. 초반 레이스에서는 5km를 15분 대에 끊으며 선전했지만 막판 35km 구간과 40km대를 16분18초, 16분45초에 뛰며 페이스가 떨어졌던 것이 아쉬웠다.

이명승은 “다련에 도착한 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어제도 수면제를 먹고 잤다. 피로가 많이 쌓였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한 케냐의 사무엘 완지루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카를로스 로페스(포르투갈)가 작성한 올림픽 기록(2시간9분21초)을 무려 3분 가까이 앞당겼다.